



하나님의 큰 뜻 담은 지저스타임즈 1주년 감사예배 드려

이사진들과 논설위원, 문서선교 발전을 위하여 힘 있는 역할 다짐

창간 1주년을 맞이한 지저스타임즈 및 인터넷신문방송 크리스찬포토저널(www.cpj.kr) 대표이며 발행인 정가남 목사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11시 한국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그리스당에서 많은 동역자와 이사장 전영춘 목사, 이사진들, 논설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격려와 사랑으로 축하하며 애찬을 나누었다.

이날 발행인 정가남 목사 사회로 이사장 전영춘 목사 기도와 본지 상임고문 이정우 목사가 시편 1편1-6절 말씀을 봉독하고 “복 있는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지저스타임즈 기독교신문과 크리스찬포토

저널 인터넷신문 방송을 통하여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본지 상임이사 장영기 목사(예신총회 총회장)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발행인 정가남 목사는 신문이 발행되고 인터넷TV가 방송이 되기까지 지난 3년간 기도도 준비해 온 가운데 2007년 10월 25일 문광부에 등록을 마치고 10월 ~ 11월 본지 홍보지를 발행 배포하고 12월 19일 창간 1호가 발행돼, 2008년 12월 19일 창간 1주년을 맞았다며 인사발송과 경과보고를 했다.

발행인 정가남 목사는 지저스타임즈(jesus

times)intv와 크리스찬포토저널(christianphotojournal) www.cpj.kr 인터넷신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이 시대의 인문을 통한 문서선교와 복음을 삶은 인터넷방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기독교 신문 방송, 인문은 기독교를 대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교계 안의 화합을 이루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지와 인터넷신문방송은 이사진과 논설위원, 기자들이 호흡을 같이하여 한국교계의 부흥과 경신을 이루는데 헌신을 갖고 뛰어날 것 등을 다짐하며 본사 운영을 위하여 날마다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화합을



강조했다.

본지 운영진

발행인 정가남 목사, 이사장 전영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등 상임이사, 운영이사, 후원이사 등 44명과 리영수 기자, 전향의 기자, 민경준 기자, 김규리 편집부장, 대전지사, 충청지사, 강원지사, 인천지사, 동경지사, 호주지사, 태국 치앙마이지사, 우간다지사, 워싱턴지사 등이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두 후보, 기자회견서 장군 명군 신경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이 19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호1번 이광선 목사와 기호2번 임신형 목사 두 후보는 각자 소견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가운데, 장군 명군 미묘한 신경전이 오고 갔다.

이광선 후보는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 신앙양심이 문제 있다”

지난 14대 선거에서 임신형 현 대표회장이 10억 기부를 공약한 이후 쏟아진 금권선거 논란과 이로 인해 발생한 한기총 개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금권선거를 비판했다. 이 목사는 “후보와 참모 모두 ‘돈이면 무조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신앙양심이 마비된 것”이라며 “선거의 첫 단추만 바로 되면 한기총 개혁은 문제 없다”고 단언했다.

기호 2번 현 한기총 대표회장 임신형 목사는 “한기총을 타락의 온상지로 보는 것은 용납 못해”

임신형 목사는 “몇몇의 행동으로 전체를 타락한 것처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목사는 “한기총을 마치 타락의 온상지 같이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가 타락된 것 같이 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상기된 얼굴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기독교인 단체들의 감시단 활동에 대해서도 “기라성같은 목회자들을 다 타락한 자로 보고 신고하라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목사는 찬송가공회 회장으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찬송가공회의 안정을 약속하면서 법안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 그는 “찬송가는 거룩한 노래지만 찬

송가책은 돈 주고 만든 상품인만큼 시장원리에 따라 저가 고품질로 보급하는 것이 맞다”면서 “어떤 출판사의 독점과 독식을 떠나 시장경제 원리에서 찬송가가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형 목사에게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다짐 발언이 기자회견에 의해 요청됐다. 임신형 목사는 금권선거 의혹을 많이 받는 만큼 확실한 다짐을 해달라는 요구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겠다”고 답했다.

임 목사는 “20주년 기념사업만 아니어도 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러한 한기총 20주년 기념사업에 강한 애착을 나타냈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교계 언론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첫 공동기자회견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12월 3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 3층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이날 선출된 대표회장 당선지는 새해 1월 29일 총회 인준을 거쳐 제 15대 대표회장직무를 맡게 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장웨신 총회장 장영기 목사

금년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 속에 흘러 들어온 세속주의에 의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

로 이 날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변도나 낱씨를 밝히는데 전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철저히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만들어 놓고 화려한 종교적 의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놀고 축하하는 그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곧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탄생한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나사렛에 오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동방에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물었을 때 당시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지도자들과 서기관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은 선지자들에 의해 수많은 예언된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려 베들레헴 땅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탄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눅27)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목을 땅에 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때 예수탄생에 대한 연극을 하였습니다. 여러 배역을 적당한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그 교회에는 제리코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개구쟁이였으며 말년이었습니다. 그를 땀가 하다가 낙심할 것 같아서 가장 쉬운 역인 여관주인을 맡겼습니다. 극중에서 요셉

이 와서 “방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없어요”라고 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어른 제 아내의 곧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제발 방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처량하게 간청하니 제리코는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없다고 그래” 하고 말했습니다. 제리코는 정신이 번쩍 들어 “없어요. 탄데 가봐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힘없이 뒤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자 제리코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리코는 울먹이며 극본에도 없는 말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요셉 그리고 마리아, 가지 마요. 여관방은 없어도 내 방은 있어요.” 지도하는 선생님은 당

황했고 그 날의 연극은 망쳐졌습니다. 그러나 제리코의 울먹이는 말을 들은 성도들은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

다. 주님은 지금도 방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의 방을, 여러분에게는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방이...한쪽 구석방이 아닌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실 방이 있는지요? 마음속 가장 좋은 방에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모시고, 마음 한 구석진 곳에 예수님을 세워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는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며, 가장 좋은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탄이 매일매일 되게 합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주님이 우리는 위해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굿간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시다.

2008~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 | | | | | | |
|-----------|---|-----------|--|------------|---|
| 1월 |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10 엘리야수양관(양정석원장)
12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4-16 평강교회(백대근목사)
21-23 울산산기도원(장지복목사)
28-30 기도온젖방교회(이강유목사) | 5월 | 5-7 성도교회(이경석목사)
12-24 성지순례
26-29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월 | 1-4 은누리복음회수양회(엄기호총재)
8-10 광선수양관(방만석원장)
1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2-25 교단 총회
29-10/1 인천성경교회(윤양표목사) |
| 2월 | 4-8 구정주2간(신교지방문)
11-13 천홍소망교회(김기돈목사)
18-21 이천영광교회(이인수목사)
25-27 정평중앙교회(박종현목사) | 6월 | 2-5 김립산기도원(이국란원장)
9-11 성은교회(허동석목사)
13 안양갈멜산기도원
16-18 성심교회(한원종목사)
23-25 변동평화교회(한봉희목사)
30-7.2 화동교회(김계인목사) | 10월 | 6-9 성지교회(김성중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시흥성인교회(안진희목사)
20-22 성산중앙교회(정신일목사)
27-29 평택중앙교회(김복목사) |
| 3월 | 2-5 민락중앙교회(김영목사)
6-29 봄철축복대심방
1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4-26 무선중앙교회(박영렬목사)
31-4/3 설립기념축복성회(유재명목사) | 7월 | 7-10 수도산기도원(임영미원장)
14-17 중국신학교여름세미나
21-24 천양의집(송나희원장)
28-30 수정교회(이승진목사)
31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11월 | 3-6 석창교회(박남인목사)
10-12 외정제일교회(유남호목사)
17-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21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4-29 사광교회(박인덕목사) |
| 4월 | 6-8 인천제일성경교회(장길선목사)
14-15 정기노회
18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0-23 서울성경교회(이종래목사)
28-30 성광교회(조외구목사)
24-26 북경형정 한인교회(최진길목사) | 8월 | 4-6 태양교회(김영섭목사)
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8-21 천문기도원(최정숙)
22 한일산
24-30 특별심야부흥성회(예복교회) | 12월 | 1-3 신광침례교회(조주행목사)
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8-10 1. 마정성경교회(김달영목사)
12 2.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15-17 한영교회(임원길목사)
26-30 오봉석목사초청부흥성회 |

2009년

- | | | | |
|-----------|--|-----------|---|
| 1월 | 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12-14 흥산교회(김장섭목사)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26-30 필리핀산기도원 | 5월 | 4-6 신성교회(김정수목사)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18-30 복미지역 연합성회 |
| 2월 | 2-5 해방기도원(백재욱원장)
9-11 옥산성경교회(박병정목사)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 6월 |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15-17 주영교회(여준석목사)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
| 3월 | 축복대심방 | 7월 | 6-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7 신학생여름집중세미나
20-22 산성교회(김장남목사)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
| 4월 | 6-8 목양교회(주희순목사)
13-14 정기노회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 | 3-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3 에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원장)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3~ 2주 연속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



강사 소진우 목사
☎ 011-267-1434

약 력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컬럼리스트
- 월드마션문화신문 이사장
- 예복교회 담임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 02-3391-9676 / 011-267-1434



와보라!! 기적의 현장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열린찬양교회

찬양치유(무료)시범설명회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렘17:14) (구로보건소, 구로5동 동사무소 옆 100m)

주강사 장 창 윤 목사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총재/웨신총회부총서와 대표회장)

02)862-3181

서울찬양신학연구원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축)성탄과 새해 선물은 "에뚜알"에서...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을VIP로 모시겠습니다.



JTNV방송(지저스타임즈)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토탈웨딩 에뚜알(금,보석,다이아몬드 도매)



- ▶ 예물, 한복, 침구 신혼여행, 웨딩드레스를 한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 금, 다이아몬드를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도매가격으로 해 드립니다.
- ▶ 교회 임직 및 칠순 · 회갑 한복을 특별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 ▶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예산을 대폭 절약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탈웨딩 에뚜알

손님을 VIP로 모시는 대표 : 정기남
직통 02-741-0032, 011-468-6574

문의전화 : 02-2272-5261, 735-5269
http://weddingetoile1.cafe24.com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향공제회관 12층 전관
(1호선 종로5가역 12번출구 도보 3분)